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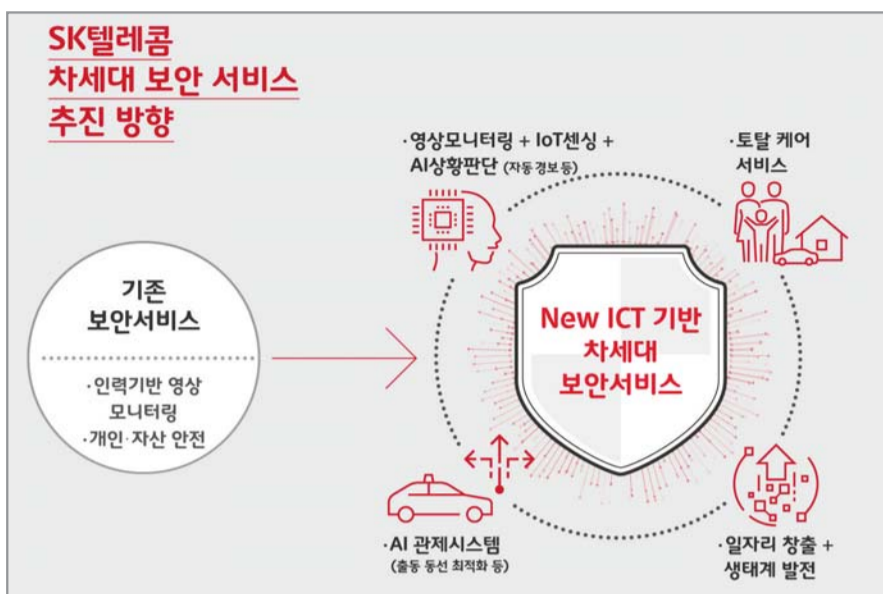
SKT, ADT캡스 인수... AI·IoT 더해 '보안 최강자'로

맥쿼리인프라와 공동인수 의결
7020억원 투자해 경영권 확보
국내 보안시장 규모 10조 달해
2021년까지 매출 1조 이상 육성

SK텔레콤이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국내 2위 물리보안회사인 ADT 캡스 지분 100%를 인수한다. 이동통신사업과 보안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SK텔레콤의 강점인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보안사업과 결합해 통합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오는 2021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회사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보안시장의 구도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출동보안)을 합한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9조500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8일 이사회를 열어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공동으로 ADT캡스 지분 100%를 1조276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7020억원을 투자해 ADT캡스 지분 55%(74만주)와 경영권을 확보한다.

양사가 인수하는 회사는 ADT캡스 주식 100%를 보유한 '사이렌홀딩스 코리아'다. 양사는 사이렌홀딩스 코리아의 기업가치를 부채 1조7000억원을 포함해 2조970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ADT캡스 예비파(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11배 수준이다.

양사는 이날 매각 주체인 칼라일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업결합 신고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3분기 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ADT캡스 인수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보안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물리보안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6%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프리도니아리서치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22년까지 연간 7% 이상 성장이 지속될 전망

이다.

SK텔레콤의 유영상 CFO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인가구와 고령가구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국내 보안서비스 보급률은 낮은 편"이며 "향후 SK텔레콤의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 IPTV 등 ICT서비스와 연계되면 수익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보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마존은 무선 보안카메라에 특화된 스타트업 블링크를 인수하기도 했다.

국내 보안시장은 에스원과 ADT캡스, KT텔레캡 등 3개 회사가 국내 시장의 95%를 차지해 3파전 양상을 보인다. SK텔레콤이 인수한 ADT캡스는 에스원에 이어 57만명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 2위 물리보안 사업자다. 지난해 매출은 7217억원, 영업이익은 1435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14년 보안업체 NSOK를 인수한 바 있는 SK텔레콤은 이번 ADT캡스 인수로 그간 부진했던 보안 시장에서도 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성장성이 높은 보안 산업에 영상보안기술·AI·IoT·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하고, 보안 산업을 4차 산업혁명 혁신이 본격화하는 뒷받침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AI·IoT·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보안 관리자가 육안으로 영상을 감시하며 상황을 판단했지만, 통합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급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이상 징후를 AI가 스스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 행동이 카메라나 센서에 포착되면 자동으로 보안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리 경비 인력과 차량을 배치하는 등 AI 관제를 통한 사전 예방 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개인과 자산 안전을 위한 출동 서비스 중심 사업모델을 넘어 토털 케어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편의점 보안 관리,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장 관리 등 새로운 시설 보안 서비스도 출시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ool.co.kr

한줄뉴스

▲ 대학생들이 평소 마음에는 두고 있거나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 1위로 '사랑해요'가 꼽혔다. 반면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 1위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해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발표했다.

▲ 최근 정부가 스마트팜(SmartFarm)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세계 최대 생활가전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8분기 연속 업계 1위를 달성했다.

▲ 현대·기아차가 올해 친환경차 판매 목표내 세운 30만대 돌파에 청신호가 켜졌다.

▲ '우선주'가 투자 측면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다 한국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1분기 주요 카드사의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5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3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3억원(42.9%) 감소했다

▲ 기업들의 신중 등급소평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신중 등급소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이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온라인쇼핑몰이 '이미지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증권 직원 21명 ‘유령주식’ 알고도 매도... 檢 고발”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내부통제 미비·전산시스템 부실
삼성SDS와 수의계약 문제도

감독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직원 21명에 대해 '유령주식' 임을 알고도 매도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와 향후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일어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 상 메뉴를 잘못 선택해 현금이 아닌 주식을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 28억1000만원이 아닌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됐고, 이 중 22명이 1208만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내면서 증시에 충격을 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제 미비로 결론내렸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을 뿐 아니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없었다. 또 발행주식 총수의 30%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어도 시스템 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되지 않는 상태였다.

사고대응도 미흡했다.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었고,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있었다. 이번 배당사고와 비슷하게 위조주식이 다시 거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또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의 '유령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2명이 1208만주의 매도 주문을 냈다. 실제 거래가 체결된 것은 16명의 501만주다.

금감원은 실제 거래 체결 여부를 떠나 주문수량이 한 주에 불과하며 바로 주문을 취소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착오주식임을 알고도 매도주문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고발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와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증권회사에서 이번과 같은 주식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양상민 기자 smahn1@

금타, 방산업체 지정취소 요청... 더블스타 매각 속도내나

(금호타이어)

채권단, 방산부문 제3자에 분리매각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이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단은 지정취소 뒤 금호타이어의 방산 부문을 더블스타가

아닌 국내 제3자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전투기에 쓰이는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관련 규모는 연 16억원 정도다.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 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투기 타이어 사업이 외국 업체에 넘어갈 경우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 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분리해 비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사유는 방산 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등이 대부분이지만,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방산 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상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양상민 기자 ysw@